

북한개발소식 02

2021 February | 통권 184호

| 이달의 주제 |

2021년 북한 전망과 선교



2021년 북한 전망과 선교

오픈도어선교회 북한선교연구소

CONTENTS 2021 February

이달의 주제 :

2021년 북한 전망과 선교

권두칼럼	01	2021년 북한 전망과 선교
칼럼_1	09	최경희_ 북한 제8차 당대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
칼럼_2	17	양운철_ 2021년 북한정세 전망
칼럼_3	23	정은찬_ 2021년 북한 경제 전망
탈북민 수기	28	편집부_ 라디오, 연변 냉면, 그리고 안전 가옥 (1)
북한 뉴스	32	북, 제 8차 당대회 개최. 외
서평	37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북중국경 시리즈 3)
북한 기도 제목	40	북한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



북한은 심한 통제로 인해 충분한 정보를 얻기 어려운 지역이다. 그러다보니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신년사는 항상 큰 주목을 받았다. 북한이 스스로 말하는 자신의 현 상황과 앞으로의 청사진은 북한의 한 해 행보에 대한 중요한 힌트가 되어왔다. 그렇지만 신년사가 발표되지 않을 때에도 북한은 특정한 회의나 발표 등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내왔다. 올해도 작년에 이어 신년사가 생략되었지만 제 8차 당 대회를 통해 지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비롯한 국정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당 대회는 수년에서 십 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열려온 조선노동당의 전당대회로서 당 규약이 개정되고 인사 변동이 있는 큰 이벤트인 만큼 어찌 보면 올해를 넘어 앞으로 상당기간 동안의 북한의 방향성에 대한 힌트를 얻을 기회라고도 할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북한의 제 8차 당 대회 결과를 중심으로 올 한해 북한의 행보를 전망해보고 북한 선교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며 기도의 제목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제 8차 당 대회 살펴보기

제 8차 당 대회의 내용을 찬찬히 살펴보면 먼저 경제 이슈가 중요하게 논의되었다는 점이 눈에 띈다.金正은은 지난 국가경제발전 5



〈1월 14일 열병식에서 이동식 발사차량에 실려 등장한 신형 SLBM '북극성-5' (시옷)〉

개년 계획의 목표가 '모든 부분에서 엄청나게 미달'되었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위의 발언을 통해 경제 실패를 자인했으며, 그간 '쓰라린 교훈'을 얻었고 단호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새로운 경제발전 5개년 계획의 원칙은 자력갱생, 자급자족이 유지되었으며 국가

적 위기 속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비사회주의적 요소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로동당 규약도 개정되었다. 강력한 국방력을 강조하는 내용이 보장되었다. 또한 5년 만에 비서제를 부활시켰다. 정무국은 다시 비서국으로 환원되었으며, 각급 당 위원회와 정치 조직들의 책임자 명칭 역시 '위원장/부위원장'에서 '책임비서/비서/부비서'로 회귀한다. 최근 내세우는 '인민대중제일주의'를 공식적으로 기본 정치방식으로 채택하였다.

신형 핵미사일을 탑재한 원자력 잠수함, 극초음속 미사일, 정찰위성, UCAV 보유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다. 아울러 "핵무력 건설을 계속 강행 추진하겠다"는 언급 등 국방력 강화에 대한 강조가 이어졌다. 당 대회에 이어 열린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5'를 비롯한 전술 전략 무기를 선보이기도 했다.

대외 관계에서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했다. 미국에 대해서는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의 열쇠는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에 있으며,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고 밝혀 바이든 행정부에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요구하였다. 한국에 대해서는 방역 협력, 개별 관광 등 '비본질적 문제'로 관계 개선에 관심이 있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어 신형 무기 도입을 비판하고 한미연합훈련 문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면서도 한국 정부가 남북합의를 잘 이행한다면 다시 3년 전 봄날이 올 수 있다고 언급하였다.

경제 문제의 대안이 마땅치 않다.

이번 8차 당 대회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행보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인상적인 부분이 있다. 먼저 경제 상황에 대한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지적과 분발의 촉구가 눈에 들어온다. 북한의 경제사정이 녹록치 않음을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어 내각 경제 주요 부처 수장 대부분을 교체함으로써 쇄신의 의지를 보였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한 강조를 통해 애민적인 정치를 하겠다는 뜻도 내비치었다. 경제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들과 민생 강조의 어조로 미루어 볼 때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지만 그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제시된 것 같지는 않다. 새 5개년 계획은 특별히 새로운 내용 보다는 전부터 강조되어왔던 자력갱생, 자급자족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루었다. 실제 경제 분야에 대한 투자도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당 대회에 이어 열린 최고인민회의 내용을 보면 경제 부문에 대한 예산은 지난해보다 겨우 0.6% 늘어났는데 이는 최근 3년간 매년 4.9~6.2%씩 늘려온 것과 대비된다. 심지어 5개년계획의 핵심으로 내세운 금속·화학공업과 농업·경공업 등 민생 관련 투자도 불과 0.9% 증가해 최근 3년(5.5~6.2%)보다 대폭 감소했다.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관료들의 분발을 촉구하는 등 내부를 독려하면서 더 이상의 악화를 막는 현상유지에 집중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결국 경제적 난관을 제대로 헤쳐 나갈 뾰족한 묘수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듯 북한의 경제문제가 뚜렷한 활로를 찾기 어렵다는 점은 자연스럽게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를 우려하게 한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북한이 그간 대북 제재로 인해 남북경제협력에는 한계가 있는 반면, 중국의 비공식 지원은 확대되어오면서 북한의 대중국 의존이 높아져 온 만큼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이 자주적 발전 노선이 아닌 중국의존형 발전 전략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8차 당

경제에 대한 파격적인 발언들과 민생 강조의 어조로 미루어 볼 때 내부적으로도 현재의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대회 경제 전략의 핵심 포인트는 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¹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은 자력갱생과 내적 동력에 의한 발전 노선을 주창하기는 하였지만 북한의 중국 의존 심화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된다.

대외 정책은 원론적... 갈 길이 먼 비핵화

이번 노동당 규약 개정 및 김정은 전 위원장의 총비서 추대도 눈여겨볼만한 대목이다. 이번 추대는 선대 김정일이 “영원한 총비서”로도 불렸다는 것을 생각하면 상당히 파격적인 조치로 보인다. 김정은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읽혀진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과거의 총비서와 비서국 체제로 회귀한 것은 제7차 당대회에서 수립한 ‘조선로동당 위원장’ 체제에서 당조직의 각급별로 너무 많은 ‘위원장’ 직책이 만들어져 ‘김정은 위원장’의 권위가 충분히 서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의 ‘조선로동당 총비서’ 체제로 복귀한 것은 총비서 체제가 최고지도자의 유일독재에 유리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² 그 외에 전반적인 지도부가 상대적으로 젊은 인사로 물갈이 되었다. 김여정의 직책이 강등되기는 하였지만 이번 열병식 관련해서 김여정의 이름으로 대남 발언이 이어진 것 등을 고려하면 김여정 개인의 입지 변화 보다는 대미, 대남 외교 라인의 전반적인 비중 약화와 관계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외교를 통한 상황 개선 기대감이 약화되어 있는 북한 지도부의 분위기를 반영한다고도 볼 수 있다.

이어서 북한의 대미, 대남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

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을 밝혔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살피는 가운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대남 관계에 있어서는 “가까운 시일 안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통해 관계 개선의 여지는 열어두기는 했지만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북한이 남한의 무력 증강에 대한 불쾌감을 표하는 한편, 민간 교류나 인도주의적 협력 등 남측이 추진하는 남북협력 이슈들을 부차적이고 비본질적인 것으로 지칭하며 남북합의의 충실한 이행을 촉구하였기 때문이다. 거기에 올 3월 있을 한미연합훈련 및 첨단군사장비 반입 중단 등 구체적인 요구가 이어졌는데 한국이 당장 수용하기는 어려운 까다로운 조건들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남북 간의 관계 개선 및 교류협력 등이 제대로 추진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특히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비롯한 국방력에 대한 강조는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국방 강화와 억지력 강조 속에서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국력의 차이로 인한 절대적인 무력의 열세를 전략무기로 풀어내겠다는 복안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행보는 앞으로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전망을 여전히 어둡게 만들고 있다.

선교에 미칠 영향과 가능성

경제적인 위기에 대응하는 북한의 행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0월 열병식이나 이번 당 대회에서 계속 확인되는 부분은 북한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열악하고 당국도 이를 심각하게 받아드리고 있다는 점이다. 여전히 코로나 펜데믹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고 대북 제재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연 재해까지 덮치면서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이 우려스러운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입병 타파와 자력갱생 이상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

이어서 북한의 대미, 대남 외교 정책을 살펴보면 대체로 원론적인 입장을 고수하면서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미 관계에 있어서는 강대강 선대선이라는 원론적인 원칙을 밝혔는데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을 살피는 가운데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 이정철 (2021). “북한의 제 8차 당대회 및 남북관계 전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2021 한반도 및 남북관계 전망 토론회 자료집, pp. 5-8.

2 정성장 (2021). “북한의 노동당 규약 개정과 김정은의 위상 변화 평가”, 세종논평 2021-02.



〈제 8차 당대회 관철 선전화. '이민위천'과 '자력갱생'에 대한 강조가 눈에 들어온다. (노동신문)〉

한다는 점은 북한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올 해도 코로나 사태가 백신 보급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한 가운데 내부 분발에 대한 촉구 외에 마땅한 경제 개선 방안이 없다고 한다면 북한 서민들의 생계는 계속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현재도 봉쇄된 국경을 사이에 두고 북한 내 취약 계

층을 중심으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 이런 경제 사정이 올해도 극적으로 나아지지 않는다고 본다면 북한 주민들의 경제적 고통은 가중될 것이다. 북한 내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들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유사시에 적절한 영육간의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준비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물론 현 상황은 그리 긍정적이지 않다. 안타깝게도 북한은 공식적인 루트로의 인도적 지원, 협력에는 소극적, 부정적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으며, 조중국경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 사역도 중국 측의 계속된 코로나 방역을 명목으로 한 통제 강화와 북한의 국경 봉쇄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상황이 급변하고 사역의 문이 열릴 가능성이 올해는 충분히 열려있다고도 보인다.

현 시점에서는 공식적인 지원보다는 국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 사역이 좀 더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북한은 계속해서 자력갱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경제상황 개선은 불가능한 만큼 가장 가까운 우방인 중국과의 교류는 생각보다 빠른 시일에 열릴 수 있다. 중국은 어쨌든 코로나에 대한 대응을 나름대로 잘 하고있다는 평가를 받는 국가라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그렇다면 국경 지역을 중심으로 한 비공식적인 사역은 일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중국이 코로나 방역을 계기로 기존에 시행했던 선교사 추방 및 여러 통제 조치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

한 주의와 기도가 요구된다.

공식적인 경로로의 사역은 외교 상황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 전망은 어렵다. 이번 김여정의 강등을 비롯한 외교 라인의 비중 약화를 볼 때 북한이 대미, 대남 외교를 통한 위기 극복에 대해서 기대를 일부 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게다가 계속적인 국방력 강화와 전술 전략 무기 개발 강조,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등을 외치는 북한의 행보를 볼 때 앞으로의 비핵화 대화를 비롯한 외교 관계 진전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만든다. 미중 갈등 이 고조될 것이라는 예상이 높은 가운데 이로 인한 여파도 감안해야 한다. 이로 보건대 단시일 내에 공식적인 교류 협력 재개 등을 비롯한 문이 열릴 가능성은 그리 높아보이지 않는다. 다만 앞으로의 미중관계와 북미관계의 향방이 언제 급변할 지 알 수 없는 만큼 계속된 주의와 함께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의 손을 모아야 할 것이다.

북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한 해 되길

연 초 북한의 행보는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다. 지난 10월 열병식에서의 김정은의 눈물이나 이번 당 대회에서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이례적인 비판으로 미뤄볼 때 북한 지도부가 현 상황을 그래도 인지하고 있고 그에 대응할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보인다. 하지만 체제 유지를 위해, 김정은을 비롯한 현 지도부의 위상을 위해 어려운 경제와 민생의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비핵화 대신 더 많은 무기와 무력을 강조하는 모습은 참으로 모순적이다. 북한은 전부터 병진노선을 이야기해 왔다. 하지만 병진 노선이 체제 유지에는 효과적인 구호일지 모르나 핵 개발로 인해 계속해서 강화된 경제제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에게 그 목표 자체가 모순임은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독재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코로나 팬데믹 사태 속에서도 외부의 지원이나 의료/보건 협력도 마다하고 계속해

공식적인 경로로의 사역은 외교 상황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현 시점에서는 긍정적 전망은 어렵다. 이번 김여정의 강등을 비롯한 외교 라인의 비중 약화를 볼 때 북한이 대미, 대남 외교를 통한 위기 극복에 대해서 기대를 일부 접은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서 전략 무기 개발을 외치는 북한 지도부의 모습은 최근 강조되는 애민적인 발언들이 그저 립서비스에 지나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려와 걱정을 자아낸다. 이번 당 대회에서金正은은 당의 총비서로 추대되는 등 기존 선례와는 달리 아버지 김정일의 전 직책까지 물려받으며 위상 강화에 신경을 쓴 모습을 보였다. 그렇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오히려 북한 내에 지도자에 대한 숭배적 충성의 강화와 함께 권위에 위협이 되는 기독교인들을 비롯한 소위 반동에 대한 색출, 단속의 강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제 북한이 진정으로 살 길이 무엇인지 깨닫고 변화할 수 있길 바라며 여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욱 절실하다.

21년 새해도 북한 선교 현장은 여전히 많은 제약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전망해본다. 특히 작년부터 이어져 온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및 미중 갈등을 비롯한 불확실성이 정세를 좌지우지 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전망과 예측이 무의미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변수들을 미리 생각하고 또 예기치 못한 기회의 가능성을 주시하며 준비하는 것은 사명을 맡은 자로서의 당연한 바라고 믿는다. 북한을 향한 복음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리는 올 한 해가 되길 기대하며 사역자들과 선교 현장을 위한 꾸준한 중보의 기도에 힘쓰자. ☺

북한 제8차 당대회의 의미와 향후 전망

최 경 희 (사단법인 샌드연구소)

1. 서론

2021년 1월 5~12일 평양에서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열렸다. 이번 8차 당대회는 36년 만에 개최된 7차 당대회와 달리 4년 8개월 만에 소집됐다. 당규약에 명시된 대로 5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당대회의 정례화에 의미를 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기층당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당세포 비서대회, 초급당 비서대회를 5년에 한 번씩 소집하는 규정을 당규약에 추가해 당 기능의 정상화를 시도했다. 북한은 8차 당대회를 “일하는 대회, 투쟁하는 대회, 전진하는 대회”로 규정했다. 이는 7차 당대회(2016년)에서 제시한 ‘경제발전5개년전략’ 등 대부분의 과업들이 부진한 원인을 “객관이 아닌 주관에서 찾고” 반성하고 투쟁하는 ‘자기비판 대회’로 치렀음을 의미한다.

金正은은 개회사에서 “당의 최고회의 소집 자체가 혁명을 승리의 다음 단계로 이끌어가

려는” 자신감의 표출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사실상 열악한 대내외적 환경에 따른 수동적 태도, 자신감의 저하, 그리고 사계절 중 가장 추운 1월 초 영하 16도의 엄동설한 심야에 열병식으로 마감한 8차 당대회 전 과정에서 북한의 다급한 속사정이 엿보인다.金正은의 연설에서 북한의 현실을 ‘일찍이 있어 본 적 없는 최악 중의 최악으로 계속된 난국’¹ 이라는 표현에서도 그 절박감이 드러난다. 이른바 ‘3중고’라 불리는 북한의 경제난은 핵개발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되는 가운데 2020년 들어 ‘코로나 19’의 확산과 그에 따른 국경 봉쇄조치로 무역 중단과 소비재 부족 현상 등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고 있다. 게다가 지난해 9월 들어 태풍 8호, 9호, 10호(바비, 마이삭, 하이선)가 연이어 들이닥쳐 주민들의 보금자리를 휩쓸고 지나가는 등 극심한 태풍피

¹ 김정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한 개회사’ 『로동신문』 2021.1.6., 2면.



〈평양 시내에 북한 조선로동당 대회를 축하하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조선중앙통신)〉

해를 입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이념’으로 제시하고 통치방식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정의했다. 이념에서 이민위천은 인민을 하늘처럼 여긴다는 의미로 지난해 10월 10일 당창건 75주년 기념식에서 김정은이 7,700자 분량의 연설문을 읽으며 ‘인민’을 무려 62회나 언급하고, 고난에 시달리는 인민에게 애정을 드러내며 울먹이던 행위와 맥락을 같이한다. 이는 과거 북한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최고지도자의 파격적인 통치행위로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김정은과 대중의 분리·이탈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

‘이민위천·일심단결·자력갱생’의 이념이 곧 ‘당이 대중 속에 깊이 뿌리박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북한의 논리를 참고하면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는 김정은의 권위를 높이고, 전체주의적 독재를 강화하려는 시도로 해석

된다. 북한은 이번에公安·사법기관을 담당하는 법무부를 당내에 신설하고, 당중앙검사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고 집행부서인 규율조사를 신설하는 등 주민통제 역량을 강화했다.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일의 정치방식인 선군정치와 구별되는 김정은의 정치방식으로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8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반적 기조는 공세적 발전 노선보다 수세적 방어 전략에 가깝다. 이는 8차 당대회 행사장에 등장한 ‘이민위천과 일심단결’이라는 구호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백전백승, 일심단결’을 강조하며 높은 자신감을 자랑했던 7차 당대회보다 8차 당대회 구호는 수세적 태도를 보이며 자신감이 떨어진 것이 특징적이다. 경제 분야에서도 7차 당대회에서는 경제발전에 목표를 두었다면 8차 당대회에서는 자력갱생을 강조하며 내부예비 동원, 현상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하, 북한의 국가적 난국 속에서 소집된

8차 당대회가 3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제시했는지,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이념 및 조직구성, 경제문제, 대외 및 대남분야로 분류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김정은의 권위체계 재구축

북한 정치체제에 있어서 당, 국가, 군의 권력은 세습되지만 그 자체로만 가동이 어렵다. 권력은 권위체계의 메커니즘에 의해 작동된다. 그리고 권위는 세습도, 상속도 될 수 없으므로 김정은은 자신만의 권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이 김정은의 권위체계 구축이었다.

첫째, 이념을 통한 권위체계 구축이다. 8차 당대회에서 새로운 이념으로 제시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은 김정은의 권위체계를 재구축하는 내용으로 집약되어 있다. 북한 정치체제인 ‘수령, 당, 대중의 통일체’를 축으로 수령을 대신하는 영도자의 이민위천 사상, 당의 영도력과 인민과의 일심단결, 인민의 자력갱생으로 세 개의 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김정은의 이민위천 정신을 내세우는 이유는 인민과의 친화적 표현을 통해 괴리감을 좁히고 권위를 높이려는 데 있다. 북한 세습체제의 특성상 체제가 권력보다 권위체계에 의존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도자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를 인지하는 경우 체제의 지탱력이 약화된다. 주민들의 스스로 복종하려는 의

식에 의해 통치자의 권위는 절대화된다. 그러나 현재 3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김정은과 당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민위천의 이념을 내세워 불만을 무마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심단결은 당의 기능을 강화하여 온 나라가 하나의 사상, 하나의 마음으로 결합하는 형태를 말한다. 이는 당과 대중의 혼연일체를 전제하며 당의 통치력 강화를 요구한다. 북한 사회는 20여 년간의 시장 경험으로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과거의 충성심과 다른 정치적 단념화 현상으로 이어진다. 물론 일각의 분석대로 아직 개인의 불만이 저항력으로 표출될 수는 없으나 정치적 단념화가 지속되는 경우 주민들의 지지가 약해지고 국가운영에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당의 통치력에 의한 조직적 구속력의 결과로서 일심단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자력갱생은 어디까지나 인민의 몫이다.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나라의 내부원천을 총동원하고 절약하는 3대째 강조되는 인민적 운동이다. 자력갱생은 생산보다 절약에 중점으로 두는 현상 유지의 방법으로 자력갱생이 강조되는 시기에는 모든 애로와 난관을 참고 이겨내야 한다. 북한에서 경제와 대외관계를 희생하면서 핵개발을 선택한 것은 통치자이지만, 그로 인한 경제제재를 감당해야 하는 주체는 북한 주민들이다. 자력갱생은 이를



〈제 8차 당대회에서 총비서로 추대된 김정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가장 중심에 둔 것이 김정은의 권위체계 구축이었다.〉

반영한 개념이다.

둘째, 조직개편을 통한 김정은 권위체계 구축이다. 8차 당대회는 당 조직의 개편을 통해 비서국을 복원하고 김정은을 총비서로 추대했다. 아울러 당규약을 개정하고 당의 중앙 및 하급기관을 비서체제로 변화시켰다. 기존의 정무국을 폐지하고 당위원장 직책에서 총비서로 변경한 이유는 김정은의 권위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이다. 기존의 당과 국가 및 사회 단체의 모든 기관의 책임자 직책이 위원장제로 되어있기 때문에 최고형태의 정치조직으로서의 당의 권위를 보장하기 위해 당 기관의 위원장 직제를 비서체제로 변경했다.² 당 내부에서 위계적 지위의 차별성을 보장하여 김정은의 유일한 총비서, 유일한 영도자로서의 권위를 최대한 높이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에서-조선로동당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 채택' 『로동신문』 2021.1.10., 2면.

당중앙위원회 지도기관의 구성원들이 대폭 교체된 것도 관련성이 있다. 우선 최고지도기구인 정치국 구성원 30명 가운데 10명이 교체되었고 경제부문 출신이 대폭 임명되었다. 이러한 인적구성은 경제회복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인사구성에서 주목되는 점은 조용원의 출현과 김여정의 강등이다. 조용원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상무위원으로, 조직비서로 급승진했다. 반면, 김여정은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하고 노동당 제1부부장에서 부장으로 강등되었다. 하지만 김여정이 8차 당대회 직후 대남 메시지를 직접 내보낸 것처럼 그의 역할은 과거와 다를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3중고가 지속되는 국면에서 당 분야에 대한 간부들의 책임이 중시되는 가운데 김여정의 책임분야를 분명하게 하지 않은 것이 특이하다. 김정은 권위체계의 구축과정에 백두혈통의 책임회피 대응책으로 분석된다.

3. 경제발전 보다 현상유지에 중점

북한이 이번 8차 당대회에서 3중고를 극복하고 경제를 회복하는 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었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핵무력 강화 계획을 강조했지만 당대회 결론에선 경제 분야 언급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는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안정, 향상하며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확고한 담보를 마련

하자면 제일 걸리고 있는 경제문제부터 시급히 풀어야 한다.”며 경제문제의 절박성을 강조했다.

경제 분야 간부들의 당 핵심기구 진입 숫자가 7차 당대회 때보다 증가했고, 경제를 담당하는 내각의 인사는 절반 이상이 교체됐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1차 전원회의에서 당의 핵심기구인 정치국에 김덕훈 내각총리, 박명순 당 경공업부장, 박정근 국가계획위원회 부위원장, 양승호 내각부총리, 전현철 당 경제정책실장, 오수용 제2경제위원장 등 6명이 진입했다. 5년 전 당중앙위 제7기 1차 전원회의에서 정치국에 진입한 경제부문 출신은 4명이다. 8차 당대회 후속 조치를 위해 1월 17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에서 내각 부총리 6명과 상급(장관급) 인사 21명이 교체되었다.

북한은 8차 당대회에서 향후 5년간 경제운영 정책인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제시했다. 이번 5개년계획의 특징은 제재와 코로나 자연재해 등 3중고 속에서 실패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년 추진)에 대한 철저한 비판과 분석에 기초해 세워진 목표라는데 있다.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5개년 전략에 대해 “목표들이 심히 미진 되고 인민생활 향상에서 뚜렷한 진전을 달성하지 못했다며 실패를 자인했다. 이어 실패의 원인에 대해 “그 진상을 빠개놓고 투시했다”고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현실성과 실용성을 강조

한 새로운 5개년계획을 발표하고, 금속공업, 화학공업, 농업과 경공업을 경제건설의 중심과업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에 자원을 집중해 철과 기초조새 등 주요 품목의 국산화를 이루고, 농업생산과 소비품 생산을 증대시켜 주민들이 향상된 생활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민생활 보장을 위해 평양에 5만 세대, 함경남도 검덕지구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고, 지방 건설을 위해 전국 시·군에 매년 1만 톤의 시멘트를 공급하는 방안도 밝혔다. 철도 현대화·평양 지하철도 기술개건 등 교통운수, 금강산지구 현대화 등 관광사업, 이동통신기술 발전, 첨단과학기술 개발 촉진, 방역기반 강화 등의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대외경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관광사업 활성화를 언급했다. 제재 하에서 대외경제관계 확대보다 코로나19의 수습 국면에 접어들면 중국과의 관광 부문 협력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5개년계획의 목표 달성 여부와 무관하게 경제적 어려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5개년경제계획 해결방법으로 경제 분권이나 시장화 조치의 확산보다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일적 지휘 등 기존의 방법을 답습했기 때문이다. 김정은은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종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며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와 관리 밑에 경제를 움직이는 체

계와 질서를 복원하고 강화하는데 당적, 국가적 힘을 넣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 경제와 사회 전반에 잠식해 있는 시장경제 요소들을 제거하고 국가의 경제 장악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마디로 경제체질을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보다 코로나 국면에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된 전략인 것이다.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 올해 경제건설 분야 예산은 0.6% 증액하는 데 그쳤다. 최근 3년간 4.9~6.2%씩 늘린 것과 비교되는 수치다. 매년 3~4%대 증가세를 보인 국가 예산 수입 증가율을 0.9%로 책정했고, 5~6%였던 국가 예산 지출 총액도 1.1% 늘리는 데 불과했다. 반면 국방비는 작년과 같은 15.9%로 유지했다.

4. 중국 의존도 상승, 대미 거리 유지, 대남 압박 강화

북한의 3중고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8차 당대회 인사개편에서 중국통인 김성남 중국담당 부부장을 당 국제부장으로 임명한 것도 향후 대외관계에서 중국의 역할을 크게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김성남은 당 국제부장 자격으로 중국과 협상 범위를 넓히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 지원을 끌어내면서 중국과의 협상 하에 대미관계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연설에서 ‘사회주의 국가와 관계를 발전

시키고, 세계적 범위에서 반제공동투쟁을 전개하여 대외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할 것’임을 강조했다. 전통적 우방인 중·러 관계 강화를 통해 향후 미국과의 대결 또는 협상 국면에서 뒷배경으로 활용한 의도를 보였다. 2021년 7월이면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1961.7.11.)이 체결된 지 60주년이 된다. 이를 계기로 북중관계는 김정은이 ‘한집안 식구’로 표현한 것처럼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히 협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19의 백신과 치료제를 중국에서 공급받거나 경제의 소비재를 지원받는 등 향후 북한은 중국에 대한 일변도의 태도와 함께 의존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반면 미국에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시간을 버는 방향을 선택할 것이다. 대미협상에서 트럼프 정부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대북정책에서 실무협상을 중시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top-down) 해법보다 실무협상을 선행하는 바텀업(bottom-up) 방식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8차 당대회에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 탈락한 이 유도 바이든 정부의 실무협상팀을 위한 사전준비로 해석된다. 김정은은 이번에도 미국을 향해선 ‘대북 적대시 정책’철회를 요구하며 핵무력 증강 방침을 밝혔다. 김정은은 8차 당대회 사업총화 보고에서 “새로운 조미(북미) 관계수립의 열쇠는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 ‘강대 강’, ‘선대 선’의 원칙에서 미국을 상대할 것”이라며 상대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유동적인 태도를 취했다. 대미 운신의 폭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김정은은 ‘대외 정치 활동을 우리 혁명발전의 기본 장애물, 최대의 주적인 미국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지향시켜나가야 한다.’며 핵 추진 잠수함, 극초음속 활공 비행 탄두, 수중 및 지상 고체연료 ICBM 등 신무기 개발이 임박했음을 공식화했다. 특히 ‘비핵화’를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아 핵개발 명분을 정당화하는 한편, 조 바이든 미 행정부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더라도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를 차단하고 북핵 논의를 ‘핵군축’ 프레임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8차 당대회 이후 북한의 대남태도는 강경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12월 당시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대남무시’ 전략을 선택한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남한의 ‘합의이행’ 여부에 따른 ‘조건부 관계개선’메시지를 발신했다. 김정은은 “남조선 당국의 태도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가까운 시일에 북남관계가 다시 3년 전 봄날과 같이 평화와 번영의 새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북한식 대남 상호주의를 표방하면서 행동에 따른 보상이 따를 것임을 시사

하는 등 유인책을 제시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대남정책보다 남한의 대북정책에 따른 상호 작용을 주장하는 등 수동적인 자세가 엿보인다. 남북관계 경색책임을 우리 정부에 돌리면서 남조선당국이 계속 우리를 몰아붙인다면 달리 상대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대남압박을 강화했다. 방역사업·인도주의적 협력·개별관광 같은 비본질적인 문제를 꺼내 들고 남북관계에 관심이 있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폄하하면서도 남북관계의 ‘근본 문제’인 첨단무기의 남한 내 반입과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대남담당비서와 국제비서 직책을 폐지한 것도 가까운 시일 안에 대남·대미 관계개선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다. 특징적인 점은 당규약 전문에 “조국통일을 위해 강력한 국방력으로 근원적인 군사적 위협들을 제압하여 조선반도의 안정과 평화적 환경을 수호한다.”는 문구를 새로 추가한 것이다. 유사시에는 무력으로도 통일이 가능하다’는 점을 당규약에 명시함으로써 대남압박 강도를 강화했다. 지난해 탈북민 뼈라살포를 빌미로 대남 강경 자세를 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까지 폭파한 김여정의 위협적인 대남태도³에서 변화가

3 2021.1.12.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여정 당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를 내보내며 ‘(남한) 동네 사람들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기괴한 족속들’, ‘특등 머저리들’이라는 언사로 남한의 군사당국을 조롱하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사진평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6월 베이징에서 방중(訪中)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

없는 것으로 보인다.

5.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의 이번 8차 당대회는 내부적 정리정돈과 재편성을 핵심으로 한다. 3중고를 시급히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부의 질서를 정돈하여 더 이상의 어려움을 방지하는데 무게를 두었다. 8차 당대회는 7차 당대회보다 자신감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 특히 대미, 대남의 공격적 태도가 수동적, 수세적으로 변화되었다. 과거 북한은 수세적 상황에 몰리면 대남 강경 자세로 돌변했던 적이 있었다. 따라서 향후 북한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남북관계 개선의 일방적 추구보다 동등한 위치에서 냉정한 상대적 협상, 실무적 협상 태도가 필요하다.

다만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도 어려운 상태이지만 코로나 백신이 보급되면 이 상황은 어느 정도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지원은 반대한다. 그것은 북한이 스스로 자립하면서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절박감을 상실하는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로나 백신은 다르다. 백신을 김정은 정권에 지원하면 백신 자체가 필요 이상의 접종이 금지되어 있으므로 외부에서 걱정하는 분배의 불균형 현상이 있을 수 없다. 오히려 북한 내부의 전염병 방지를 위해 북한 정권은 열악한 분야에도 접종을 적극적으로 시도할 것이다. 북한이 중국에 친밀감을 드러내며 접근하고 있는 와중에 중국의 지원으로 어느 정도의 백신은 확보할 수 있을지 모르나 만족할 만큼의 양을 확보하기는 분명 어렵다. 남한이 백신을 보충지원 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1년 북한정세 전망

양운철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

삼중고(triple distress) 피해 지속

2020년 북한은 매우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지구촌을 휩쓴 COVID 19 발병과 함께 8월과 9월의 심각한 태풍 피해, 그리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국제사회의 경제제재가 결합된 경제적 삼중고(triple distress)를 경험하였다. 이들 현상은 북한경제에 심각한 손실을 입혔다. 일례로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한 북중접경 봉쇄로 인해 북한경제의 생명선인 북중무역은 급속히 줄어들었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2020년 10월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 수출액은 25만 3천 달러로 전년 대비 99%, 대북 수입은 74% 감소하였다. 11월의 경우 북한의 대중국 실질 수출액은 전력을 제외하면 약 200만원을 기록하였다. 전력 수출의 경우, 서로 공유하는 수력발전소 전기 생산을 북한과 중국이 수시로 서로 보내거나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북중 무역 감소량이 대북제재에 의한 무역 감소량보다 크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한 북중 국경봉쇄로 밀무역과 상호 방문을 통한 경제교류는 거의 중단되었다. 북한과 중국은 매년 상당량의 무역과 함께 인적교류를 진행해 왔는데, 이런 교류가 거의 중단되면서 그 충격파가 국가, 주민, 기업소, 시장 등 모든 경제 영역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2019년 12월말 조선로동당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경제제재로 인한 자국의 경제적 위기를 정면 돌파로 극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 2020년 1월 4일자 노동신문은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갱생의 힘으로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정면 돌파 전략은 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런



〈제 8차 당대회에 앞서 시행된 80일 전투 선전화〉

사태에 염려한 북한은 2020년 2월 13일자 노동신문에서 “남에 대한 의존심과 수입병, 패배주의와 회의주의, 본위주의와 무책임성은 정면 돌파전의 가장 주되는 투쟁대상”이라며 자력갱생을 포기하는 것은 경제문제가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사상문제로 치부하고 있다(전영선, “2021년 북한 사회문화 분야의 화두,” 『월간 북한』 2021년 1월 참조).

그러나 생산방식이 대외 개방이나 수출을 동반하지 않고 정치적 논리로 무리한 자력갱생이나 주체화를 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국제무역의 분업 효과를 얻지 못해 북한상품은 경쟁력을 잃게 된다. 거기다 모호한 소유권과 재산권 등 사회주의체제의 모순이 결합한 북한의 경제는 효율성을 잃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1960년대와 1970년대 한국은 대내지향적인 경제정책의 성과 부진을 수출주도형 경제정책으로 선회하여 한국 경제의 기적을 달성하였다. 북한도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 해외자본과 기술을 유치하

여 수출주도형 생산방식으로 변환하여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의 현지화 전략도 병행해서 시행된다면 북한에서의 고용 증가, 기술 발전, 외화 확보 등은 자명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계속되는 주민 압박정책

삼중고라는 외생적 요인에 대한 북한의 대응책은 매우 부족하다.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은 주민들의 이동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현재 북한에서 특별한 경기 부양책은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경제적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은 거의 실종되었다. 경제부흥 정책 대신 80일 전투라는 주민 동원령을 시행했다. 전통적으로 북한은 경제적 어려움을 속도전의 형식을 띤 대중노동력 동원 방식으로 해결해왔다. 이 방식은 주어진 짧은 기간에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사상혁명의 성격을 지닌다. 소위 70일 전투, 100일 전투 등으로 표현되는 강제동원 방식의 기본은 강력한 자력갱생 의지에 기초한다. 따라서 국가의 주요 기념일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이 도래할 때마다, 새로운 속도전을 전개해왔다. 그렇다고 낙후된 경제가 갑자기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속도전을 시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민들을 독려하여 국가에 의존시키고, 주민들의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은 2020년 10월 5일 개최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 회의에서 “80일 전투를 힘 있게 벌일 것”을 선포하였다. 이런 주민 압박정책은 북한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등장하고 있다. 2021년에도 상황에 따라 또 다른 이름의 속도전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정은은 2020년 10월 10일 심야에 진행된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 연설에서 “지금 이 행성에 가혹하고 장기적인 제재 때문에 모든 것이 부족한 속에서, 비상 방역도 해야 하고, 혹심한 자연피해도 복구해야 하는 엄청난 도전과 난관에 직면한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고 북한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피력하면서, “국가가 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이해해주고 자기 집일처럼 떠맡는 고마운 인민도 이 세상에 우리 인민밖에 없다”며 인민들에 대한 고마움도 표시하였다. 이는 기존의 정책실패를 희석하려는 김정은의 감성 정치의 일면을 보여준다. 그리고 김정은은 북한 주민들이 전쟁대신 번영할 수 있는 최강의 군사력을 비축했고, ‘부흥번영의 이상 사회를 최대로 앞당겨 실현할 수 있는 방략과 목표를 제8차 당 대회에서 제시’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실속 없는 제8차 당 대회

2021년 1월에 개최된 노동당 제8차 대회

에 대한 기대는 매우 높았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북한이 전향적인 경제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상도 높았다. 그러나 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은 선제적으로 경제실패에 대한 사과로 시작하여 간부들의 사상적 해이와 무책임을 비난하였다.

김정은은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 “결함의 원인을 객관이 아니라 주관에서 찾고”, “일부 일꾼들은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 수행이 미진된 주요원인을 적들의 제재와 자금부족으로 보는데 사실 당 제7차대회가 진행된 2016년이나 지금이나 형편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 제7차대회에서 결정할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목표를 작성할 때 실현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타산해보고 작성하였어야 하겠는데 주관적 욕망에 사로잡혀 잘 따져보지 않고 작성하다보니.....우리에게는 현실을 무시한 목표나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언급하면서 강력하게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간부들의 무리한 정책 목표설정 때문이라고 질타하고 있다. 이런 김정은의 태도는 이미 2020년 8월 당 전원회의와 11월 정치국회의에서 경제 간부들의 주관주의와 형식주의를 비판할 때 나타난바 있다.

제8차 당대회에서 표출된 문제점은 현재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전향적인 경제정책이 부재하고 그를 뒷받침할 충

분한 자본과 기술 등이 없기 때문이다. 김정은으로서도 가용할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북한의 최대 관심은 경제발전보다는 최고 지도자의 안위와 권위 유지이다. 물론 북한의 경제운용 방식이 크게 변화한 점도 있다. 2019년 개정된 헌법 전문에서 청산리 정신이나 대안의 사업체제가 삭제되고 대신 사회주의기업 책임관리제가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데올로기 운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제운용 방식에서는 경제적 합리성과 인센티브가 많이 결여되어 있다. 개인 사유권의 과감한 확대, 소규모 사유화 활성화, 남북한 경제협력 강화와 같은 보편적인 개혁과 변화를 얼마나 수용하는지 여부에 북한경제의 성패가 달려있지만, 이런 점을 당대회에서 논의하기에는 아직 북한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2021년 남북한 관계 전망

현시점에서 남북한 모두의 최대 관심은 코로나19 사태의 극복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관심이나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낮다. 실제 여러 여론조사 결과는 남북관계 비관론이 증가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2020년 6월 민주평통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전

망은 28.5%로 전 분기 대비 약 23%가 감소하였다. 2020년 7월 KBS 국민 통일의식 조사에 의하면 북한을 경제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2018년 33.7%에서 2020년에는 43.7%로 증가했다. 북핵문제 해결에 대한 전망은 당분간 해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2018년 41.7%에서 2020년에는 65.4%로 증가했다. 금강산 사업 재개, 북한 핵과 경협 연계 등도 모두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런 결과는 최근 북한이 자행한 행위 때문이다. 2018년 ‘판문점선언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한 군통신선을 차단했고, 한국 GP에 총격을 가했고, 해안포 포문을 개방했고, 개성의 공동연락사무소 건물을 폭파하였다. 이로 인해 2018년 9.19 군사합의도 무의미한 합의가 되고 말았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한 공동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북한의 낙후된 경제운용은 북한 자체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반도 통일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통일의 전단계인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달성도 요원하게 된다. 한국정부는 통일기반 조성을 위해 수익성과 관계없이 대북 지원을 시행한 사례가 있다.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와 연계되어 현재 남북경협은 유명무실 해졌고, 수익성 제고를 기대하는 투자성 사업보다는 대북 지원 사업으로 변질되어 있는 현실이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 현장을 시찰한 김덕훈 내각총리는 “관광지구를 우리 식으로 건설함으로써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것”이라 언급하였다. 금강산의 남한 측 관광 시설물은 북한 측이 철거를 추진하였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이유로 연기되어왔다. (조선중앙통신, 20.12.20)〉

다. 그나마 대북 지원마저도 거의 중단되었다. 북한으로서는 경제제재의 틀 안에서 한국과의 경제협력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남북경협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북한의 김덕훈 내각총리가 금강산을 방문하여 금강산관광지구에 있는 한국이 건설한 시설물들을 임의로 철거하고, 금강산 지역을 자체 개발하고자 하는 발언이 좋은 사례이다.

김정은은 열병식 연설문에서 “사랑하는 남녘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이 마음을 정히 보내며 하루빨리 이 보건 위기가 극복되

고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언급했지만, 그 계기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 북한의 국정 우선순위는 남북관계 개선이 아니라 코로나 19 바이러스 예방과 사회 안전이다. 단기적으로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보다는 보건 및 사회 안정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김정은은 “우리는 적대 세력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가증되는 핵 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들과 위협적 행동들을 억제하고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자위적 정당방위 수단으로서의 전쟁억제력을 계속 강

2021년 북한 경제 전망

정은 찬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수)

화해나갈 것”이라며 핵보유 당위성을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낮지만, 회담이 시작되더라도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는 순조로운 회담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2021년 북한은 어디로?

2021년은 김정은 취임 10년이 되는 해이다. 김정은 사망 이후 김정은은 강력한 독재 체제를 유지하면서 핵무기, 미사일, ICBM을 계속 발전시켜 왔다. 반면 국제사회의 경제제재는 계속 강화되었다. 앞서 언급한 삼중고로 인해 북한경제는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해있다. 북한에 대한 거의 유일한 지원국인 중국 의존도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주체, 자주, 자력갱생을 내세우는 북한으로서는 중국의 영향력을 줄이고 싶을 것이다.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김정은의 관심은 최대로 정치와 경제를 안정시키고 독재체제를 공고화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김정은은 집권 초기에 6·28 조치, 5·30 담화 등 일련의 개혁을 시행하였다. 이들 정책은 북한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주었고, 김정은이 개혁적 성향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김정은의 개혁정책은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 정책의 우선순위가 국방이 최우선이더라도 주민들의 기본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상당한 체제 불안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현 시점에서 보면, 김정은은 올해에는 우선적으로 경제를 안정시키고, 추후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경제정책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과 신기술 투입보다는 전통적인 노동력을 동원한 사업들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된다면 북중무역이 다시 활성화되어 북한경제에 순작용으로 작동할 것이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핵포기 압박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취할 것이고, 이 단계가 장기간 계속될 경우 북한은 다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받게 되어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것으로 전망된다. 2021년에는 북한의 비핵화를 기대해 본다. 🐟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 김정은 집권 10년, 2021년의 북한

2021년은 김정은 집권 10년이 되는 해이다. 북한은 올해 지도자의 10년간 업적에 정점을 찍을 경제성과를 창출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집권 1년 차였던 2012년 4월 15일 김일성 생신 10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우리 인민들이 더 이상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게 하겠다.”고 언급하며 “인민들이 이밥(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살아가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할 것”임을 공언하였다.

집권 5년차 시기에는, 노동당 7차 대회(2016.5.10.~5.12)를 개최하여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이하 5개년전략)’(2016~2020)을 제시하였으며, 집권 7년차 2018년에는 집권 이후 추진해왔던 경제정책 기조를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2013. 3. 31. ~ 2018.

4. 19.)에서 ‘경제건설 집중노선’(2018. 4. 20. ~현재)으로 전환하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당해에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2018.4, 2018.5, 2018.9), 두 차례의 북미정상회담(2018.6, 2019.2)이 열렸고 북·미정상간에 비핵화와 대북제재 해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2019년 2월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그 행보는 중단되었으나, 2018년 한반도는 북한의 긍정적 태도로 평화실현의 희망에 부풀었던 한 해였다.

집권 9년차, 5개년전략 완성의 마지막 해였던 지난해 2020년 북한은 당 창건 75주년(2020.10.10.)을 맞아 미진된 전략목표를 완성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 ‘정면돌파전’을 선언(2019.12.28.~12.31.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하고 ‘자력갱생’과 함께 전면전에 내세웠으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 이에 대해 북한은 ‘경제정책 실패’를 인정



〈지난 10월 단동 세관의 모습. 왕래가 없고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2020.8.19.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하고, 올해 2021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이하 5개년 계획)’(2021~2025)을 공표하였다. 북한이 2021년 경제목표 달성을 위해 전면에 내세운 정신은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다.

5개년계획의 첫 번째 해인 2021년, 과연 북한은 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여전히 삼중고(대북제재·코로나19·자연재해)의 위기는 잔존하고, 경제성장을 담보할 대내의 동력 확보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북한 경제는 2021년, 희망적일까? 비관적일까?

II. 8차 당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경제목표

북한의 경제목표는 신년사를 통해 발표되어 왔다. 김일성 통치 시기 지도자의 육성연설로 시작된 신년사 발표는 김정일 시기 ‘노동신문’과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공동사설로 서

면으로 전달되었고, 김정은 집권 이후 다시 육성연설(2013~2019)로 발표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2020년, 2021년 신년사를 발표하지 않은 채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당대회 보고로 대체하며 새해를 시작하였다. 2020년에는 그 전해였던 2019년 12월 28일부터 3일간 진행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채택한 결정서에 주요 경제목표들을 담았고, 올해 2021년에는 노동당 8차 대회(2021.1.5.~1.12) 보고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공표함으로써 신년의 경제목표 제시를 대체하였다.

북한은 8차 당대회 보고에서 공표한 새로운 5개년계획(2021~2025)이 노동당 7차 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전략(2016~2020)목표가 미진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을 반영한 실효적인 계획이라고 밝혔다. 5개년계획에서 북한은 (1) 경제자립구조의 정비 및 보강, (2) 수입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국산제품 생산 증대, (3) 인민생활 향상에 중점을 두고 중점과업으로 (1) 금속·화학 등의 기간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을 및 경제 전반의 생산 정상화, (2) 농업 부문에서의 물질기술적 기반 마련, (3) 경공업 부문에서 원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를 통한 인민소비품 생산 증산, 지역경제 자립 강화 등을 강조하였다. 한편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대내의 자립경제의 잠재력을 보완하고 보강하는 것을 전제로 할 것과 관광사업 추진을 제시하였다. 산업부

문별 목표에는 (1) 금속공업 부문에서의 주체철 생산체계 완성, 철강재 생산 확대, (2) 화학공업 부문에서의 기술역량 강화와 화학제품 생산 확대, (3) 농업 부문에서 곡물생산목표의 달성과 식량 자급자족의 실현, (4) 경공업 부문에서 국산화·재자원화·현대화를 실현할 데 대한 과제를 구체화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1) 금속공업에서 제철소 및 제강소의 개건과 에너지절약형 제철로 건설, 선철 생산에 갈탄을 이용하기 위한 기술개발, (2) 화학공업에서 첨단기술 개발의 적용 및 국산원료 사용, (3) 농업 부문에서는 종자혁명과 과학농사, 새 땅 찾기, 간석지 개간, 자연재해 대응력 향상, 농촌정리의 수리화·기계화, (4) 경공업 부문에서 신제품 개발 등을 강조하였다. 이외에도 전력생산 증대, 석탄증산, 기계공업의 현대화, 채취공업에서의 생산 증대, 교통운수의 현대화, 건설 부문에서의 살림집건설 확대, 상업 부문에서 국영상업망 복원, 수산업에서의 현대화·과학화 추진, 지방경제 발전을 강조하였다.

전술한 북한의 새로운 5개년계획(2021 ~ 2025)은 기존의 5개년전략(2016 ~ 2020) 목표 미달성 원인분석에 기반한 것으로 사실상 기존 전략목표의 핵심내용들과 어느 정도 실현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2020년까지 완성하고자 했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는 장기목표로 경제의 주체화·현대화·정보화·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달성하는 것,



〈노동신문에 소개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제 8차 당대회에 앞서 실시된 80일 전투 구호가 게시되어 있다. (노동신문, 뉴스1)〉

당면 목표에는 공장·기업소의 생산 정상화 실현이 있었다. 이를 위해 북한은 (1) 에너지문제의 해결, (2) 석탄·금속·철도운수 부문의 획기적인 발전, (3) 기계·화학·건설·건설공업 부문의 발전, (4) 먹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농업·수산업의 발전과 경공업부문의 발전, (5) 대외무역·합영합작·경제개발구 등 대외경제관계의 확대 발전, (6) 사회주의 기업책임관리제의 실효성 제고를 구체적 목표로 내세웠었다. 그러나 그 목표는 대부분 미달되었고, 북한은 이에 대해 그 실패를 2019년 8월 19일 개최한 당중앙위원회 제7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올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모든 부문에서 엄청 미달”했다는 표현을 쓰며 시인하였다.

현실적으로 2020년 북한 경제는 금속·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전반적인 산업부문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 통계발표가 매해 7~8월경에 있으므로 아직 2020년 북한경제의 주요통계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 일부 전문가들은 2020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7~10%까지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이 경우 2018년 마이너스 4.1% 보다 더 저조한 경제성장으로 북한의 내수경제는 상당한 위기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식량생산 부문에서도 2020년 북한의 식량생산량(한국

농촌진흥청 추정)은 464만 톤으로 2019년 417만 톤과 비교할 때 약 50만 톤 정도 증산되었으나, 2018년 472만 톤, 2017년 515만 톤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특히 식량수요량 550만 톤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를 뒤로하고 북한은 5개년전략을 통해 달성하고자 했던 경제목표가 미진 되었으나, 그럼에도 ‘자력갱생에 기반한 정면돌파전’을 통해 내부예비를 탐구하고 개인유휴자금을 동원함으로써 건설 부문을 비롯한 경제 전반에서 일련의 성과들을 이루었다고 홍보하고 있다.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드러난 2020년 경제성과에는 (1) 에너지 생산 부문에서 전력생산을 위한 어랑전4호발전소(2020.7.11.) 건설, 각 지역에서의 중소형 발전소(3월 16일 함흥청년1호발전소, 7월 24일 피현2호 발전소, 9월 30일 린산룡석발전소, 10월 4일 홍주청년4호발전소, 11월 6일 문천군민발전소, 12월 1일 고원대흥발전소 등 다수)건설, 풍력발전기 및 태양빛전지판 재설치 등이 성과로 담겨있다. 또한 (2) 석탄생산 부문에서는 석탄운반능력의 제고, 청년돌격대의 활약에 의한 5개년전략 석탄생산 목표의 완수, 신의주 구명탄공장 신설(8.26.), 예비채탄장 백수십 여개 확장 등의 성과가, (3) 경공업 부문에서는 국산화와 재자원화 정책을 현실로 실현하여 구두접착제·세척제의 생산, 자투리 천을 활용한 솜 생산 등의 성과를 창출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신속한 자국 내 조치로 국경봉쇄 및 해외관광객 국내유입차단에 따른 원자재 수입 감소가 공업생산에 미칠 악영향을 고려하여 내부자원 활용을 적극 장려하는 노력을 기울여 ‘재자원화법’을 제정(2020.4.12.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하고, 재활용 기풍을 전국적으로 확산한 것, 원료·자재·설비의 국산화와 재자원화에 주력하는 한편, 경공업 분야를 비롯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집중한 것을 주된 성과로 강조하고 있다.

2020년을 통해 2021년을 전망할 때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통한 경제발전의 양호한 환경 마련을 선행하지 않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에 기반한 내부예비 탐구에만 의존한다면 지난해와 같이 거시경제 성장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Ⅲ. 2021년 북한의 경제목표 달성 가능성

북한이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5개년계획은 기존의 5개년전략 목표 미달성 실패를 시정하기 위한 현실적 대응 방안 모색에 기반하였다고는 하나, 구체적이지 못하며 현실적 실현 가능성을 명쾌하게 담았는지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다. 5개년계획에서 북한이 실효를 거둘 수 있는 특단의 방안들이 자신감으로 표현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2021년 경제목

표 달성은 자국 내의 예비 동원에 국한된 가시적 성과 창출에 치중될 가능성이 높다. 건설 부문(평양시 5만 세대, 검덕지구 2만 5천 세대), 경공업 부문(국산화·재자원화·현대화),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성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그러나 5개년계획의 중점 과업으로 제시한 금속·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 집중, 이를 통한 생산 정상화의 목표는 투자 잠재력이 불투명하여 그 성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것이 북한의 현실이다. 북한 산업이 1990년대 중반 경제난으로 붕괴된 이후 원상 복구되지 못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5개년계획 목표에 명시된 경제 부문 생산 정상화의 실현은 누적된 산업부문 모순을 극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한다. 에너지 문제를 최우선으로 해결하여 경제 전반에서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생산체계의 붕괴, 경제발전 제약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주요 산업 부문들에서 노후한 기계 설비 등의 보강이 동반되어야 한다.

경제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 마련, 투자 동력 확보 등은 무엇보다 경제발전에 모든 것을 집중하려는 정책적 결단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 과연 김정은 정권이 지금까지 유지해온 ‘선(先) 체제유지·후(後) 경제발전’ 기조에서 ‘선(先) 경제발전·후(後) 체제유지’ 기조로 과감히 전환할 수 있을까? 또한 예산 배분에서 정치체제 유지, 국방력 강화보다 경제부문에 예산을 집중할 수 있을까? 8차 당대회에서 국

방력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제시한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질문에 기존의 정책 기조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답을 준다. 지난 1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서 발표한 북한의 2021년 국가예산 규모는 9,594억 북한원(USD 89.1억 \$)이다. 이중 국방 부문 지출은 15.9%(1,526억 북한원, USD 14.2억 \$)로 전년과 같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의 국방비 지출은 이 규모를 유지해 왔다. 인민경제 부문 지출 비중에 대해 북한이 회의에서 직접 밝히지 않아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으나, 대략 50% 정도로 추정되며 이는 2020년과 비교할 때 0.6% 증가한 것이다. 즉, 북한은 금속·화학공업 부문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경제 전반의 생산정성화를 견인해 내겠다고 목표를 세웠으나, 이를 담보할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올해 경제목표 달성에서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전면에 내세운 김정은 정권의 정책 방향은 북한 주민에게 또다시 막중한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북한 주민 스스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립 생존하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도한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 정권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미래를 열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함께 동행해 주길 기도한다. 

〈외부 필진의 의견은 본지의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디오, 연변 냉면, 그리고 안전 가옥 (1)

●
편집부

복음을 처음 접했을 그 당시의 상황을 떠올려본다. 단속을 피해 국경 지대 강을 건너면서 비로소 북한 당국에서 일컫는 “배반자”가 되던 바로 그 때였다. 북한에서 탈출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시점, 중국의 어느 깊은 산 속에 잠시 몸을 피해있었던 민수 형제는 다른 것 하나 없이 조그마한 라디오 하나만 손에 쥐고 있었다.

“야밤에 뒤척이며 라디오를 만지작거리다 우연히 기독교 복음 방송 프로그램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저는 그 때 들었던 설교를 기억합니다. 설교 중 한 예화가 소

개되었는데, 산에서 발을 헛디뎈 절벽으로 떨어질 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사람이 넘어지면서 나뭇가지를 붙들게 되었고, 그 때부터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화를 가만히 듣고 보니 당시 제 상황과 딱 들어맞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지만 그래도 그 날부터 매일 밤 하늘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북송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

그러나 민수 형제는 얼마되지 않아 북송되었다.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 그는 북송을 당할 그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믿음이 있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체포된 이후에 특별한 성령의 경험을 하게 된다.



“중국에서 체포되어 북한에 송환된 후 보위부 교도소에 수감된 첫날이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바닥에 누워 잠을 청하던 그 날 밤, 생전 느껴보지 못한 어떤 전기 충격 같은 것이 느껴졌는데, 마치 하늘에서 내려와 머리에서 발끝까지 온몸을 휘감고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형제는 그 전율이 아마도 감옥 생활의 고난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었던 것 같다고 고백한다. “저는 당시 몸이 아주 허약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저 혼자 힘으로는 감옥에서의 배고픔과 스트레스를 결코 견디어내지 못했을 겁니다. 제가 교도소에 있는 약 한 달 동안 제 몸을 보호했던 것은 아마 이 놀라운 성령님의 전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감옥 생활을 무사히 버틸 수 있었고, 이후 북한을 다시 탈출하여 중국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연변 냉면을 통해 인도하시다

그가 두 번째로 탈북하여 중국에 도착할 무렵, 기존에 앓았던 지병이 다시 도져 시름 시름 앓기 시작했다. 치료가 시급한 상황 가운데 한국인이 운영하는 병원이 북경 어디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얼른 표를 구하여 북경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막상 도시 한복판에서 아무런 정보도 없이 병원을 찾으려니 여

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저는 당시 언어도 통하지 않았을뿐더러 제가 찾고자 하는 그 병원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지만 왠지 택시를 타면 기사님께서 으레 알아서 데려가시겠거니 하는 작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아보니 그런 병원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아무도 감을 잡지 못하더군요. 그렇게 택시 20여대를 그저 보냈습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을 찾아갈 생각도 해보았으나 오히려 그 주변에 중국 공안들의 감시가 더 철저하였기 때문에 엄두가 나지 않았다. “때마침 근처에 ‘연변 냉면’이라고 한국말로 쓰인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혹시나 그 가게에 가면 말도 통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식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식당 주인은 거지 같이 허름한 제 차림새를 힐끗 한번 보더니 말도 걸지 않았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북한에서 넘어왔으며 한국 병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북경으로 왔지만 찾을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식당 주인은 어떤 동네로 내려가면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며 거기서 도움을 요청해보라고 했습니다. 작은 쪽지 한 장에 그 장소 이름을 한자로 적어달라 하여 마침내 택시에 탔습니다.”

간절한 기도 끝에

민수 형제를 태운 택시가 도착한 곳은 북경의 한 교회였다. 그러나 그곳은 민수 형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는 조금 달랐다. 높은 담장이 세워져 있었고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문을 지키고 있었다. 북경행 표를 사는 데 갖고 있던 돈을 거진 다 써버렸던 민수 형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다. 몸은 점점 더 아파오는데 치료비는 커녕 머물 곳도 마땅치 않아 정말 죽음이 코앞에 있는 것 같았다. '주여, 제 목숨을 살려주세요. 저는 아직 젊고 살 날이 더 많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무릎을 꿇고 하늘에 기도를 올렸지만 마음 속에 아무런 희망도 없었던 그는 '이제 다시는 해 뜨는 걸 못 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심정으로 담장 벽에 기댔다. 딱히 갈 곳도, 다른 살 방도도 떠오르지 않았던 그는 그저 죽는 순간을 잠잠히 기다렸다.

그러나 그런 민수 형제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주님은 사람을 보내시어 갈 곳 없는 민수 형제가 잠시나마 교회 안에서 머물러 살 수 있도록 허락해주셨다.

'주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그 교회를 통해 민수 형제는 숙식을 해결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앞

고 있던 병도 치료받을 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수 형제는 죽기 직전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죽음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다.

"저는 당시 하나님에 대해, 그리고 진리에 대해 더 알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 정말 삶의 마지막이 다가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을 통해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죽음이란 무엇인지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당시 가까스로 죽음을 모면하기는 했지만, 언젠가는 결국 이 땅에서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날이 오기 전까지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삶의 진정한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처음 예배를 다닐 무렵,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죽어서 지옥 간다"라는 말을 듣고 민수 형제는 마음 속으로 코웃음을 쳤다고 한다. '나는 이미 지상에서 지옥을 경험한 몸이니 내가 죽은 뒤 지옥에 가더라도 어차피 마찬가지다'라는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리를 찾아 갈급했던 민수 형제를 주님께서는 한 안전가옥으로 데려가셨다. 오픈도어선교회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곳으로서 숙식을 해결해주고 함께 성경공부를 하는 곳이었다.

"낮에는 사람들과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부터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당시에 썼



던 서신인데, 그 본문을 읽고 나서 바울의 모습과 태도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나 또한 중국과 북한의 감옥에서 보낸 세월들이 있었기에 감옥에 갇힌 심정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특히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깥 사람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의 마음 속에는 무엇이 있길래 그 믿음을 지키고 또 기쁜 마음으로 오히려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응원을 하는 것일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바울의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주신 것이 진정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민수 형제는 3년 반 동안 안전가옥에 머물면서 더욱더 주님을 알아가게 되었다. "저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집중하기로 결단하고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세네 시간은 온전히 기도하는 데 썼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매일 여덟 시간동안 성경을 읽었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지냈던 3년 반 동안 100독 이상을 했으며 암송도 2000절가량 외웠습니다."

위와 같은 고백을 들으면 민수 형제가 아주 믿음이 특출난 사람이라고 생각되겠지만, 사실 민수 형제도 복음을 진정

으로 믿기까지 그 싸움이 아주 치열했다고 고백한다. "처음 성경책을 읽었을 때 '참 교묘하게 잘 쓴 거짓말들이구나'하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말, 예수가 물 위를 걸었다는 말, 빵 조각과 생선 몇 덩이로 오천 명을 먹였다는 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말 등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습니 다. 읽기는 읽었으나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도 변화되었다. "안전가옥에서의 생활이 끝나갈 무렵, 성령 하나님께서 제 안에 믿음을 풀어주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과연 믿음이 저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것입니다.

(계속) 🐟

+ 북, 제8차 당대회 개최.



북한이 2021년 1월 5일부터 12일까지 노동당 8차 대회를 진행했다. 이번 당 대회는 김정은 집권 10년과 맞물려 열렸고 미 대통령 교체 등과 맞물려 더욱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었다. 이번 당 대회의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한국을 향한 새로운 대외정책의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대강·선대선'이라는 원칙적인 대응을 예고한 수준이었다. 오히려 중국과 러시아 등 전통 우방과의 외교에 무게를 실는 모습이 엿보인다. 북한과 중국은 이번 당대회 기간에 축전과 답전을 두 차례나 주고받으며 돈독한 관계를 과시했다.

한편 군사 부분에서는 핵기술을 앞세우며 국방력 강화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핵추진 잠수함(핵잠)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처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미국을 겨냥한 듯 1만5천km 사정권 안의 명중률을 제고하겠다고 밝혔고 초대형 핵탄두 생산과 핵무기 소형경량화 발전 등의 목표를 제시했다. 당 규약 서문에 국방력 강화 내용을 명시하기도 했다.

대내적으로는 경제 실패를 자인하고도 새

로운 전략노선이나 야심 찬 목표는 발표하지 못한 것도 눈에 띈다. 김 총비서는 경제부문과 관련해 개회사에서부터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고 자인했지만, 획기적인 목표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대북제재 장기화와 수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겹쳤던 지난해 '삼중고'를 겪으면서 현실적으로 경제 목표를 내세우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정된다.

당대회 구호로는 이전부터 사용하던 낡은 캐치프레이즈인 '자력갱생'을 다시 들고나왔다. 이외에도 '일심단결'과 '이민위천'을 제시하며 민심 다독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당 인사 변동으로는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이 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됐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부여했던 정치적 상징인 '총비서' 직책을 김 위원장이 직접 맡음으로써 명실공히 노동당의 최고지도자임을 명확히 한 셈이다. 반면 김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은 기존 정치국 후보위원에서도 빠졌고, 당 부장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번 당대회는 5일부터 12일까지 8일간 진행됐다. 1970년 12일간 열린 5차 당대회 이후 두 번째로 긴 셈이다. 이번에는 앞선 대회와 달리 구호도 사전에 제시하지 않았고, 노선도 공개하지 않았다. <참고: 언론보도종합>

+ 북, 열병식에서 신형 SLBM 공개...전술핵용 미사일도 등장



<북한이 지난 14일 8차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극성-5사'>

북한이 3개월 만에 다시 개최한 열병식에서 몸집을 더 키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공개했다. '북극성-5사(시옷)'이라고 적힌 것으로 보이는 SLBM 여러 발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실려 등장했다.

신형 SLBM 공개는 지난해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북극성-4사'를 처음 선보인 지 3개월 만이다.

북극성-5사는 북극성-4사와 동체 길이는 비슷하지만, 더 굵어지고 탄두부가 길어진 것으로 파악돼 다탄두 탑재형 혹은 사거리 연장형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열병식에는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전술미사일인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도 처음 등장했다. 이 밖에도 지난해 10

월 열병식에도 동원된 4, 5, 6연장의 다양한 발사대에 탑재한 600mm급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해 대구경조종방사포, '북한판 에이테킴스'인 전술지대지미사일이 동원됐으며, 신형 휴대용 로켓포(RPG-7)로 무장한 부대도 눈길을 끌었다.

SLBM을 비롯한 각종 전술·전략무기를 과시한 건 '국방력 강화'에 방점을 둔 당대회 메시지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위원장 연설이 없었던 데다 김정은 국방장관 연설에서도 미국을 직접 겨냥한 발언은 없었다. 또 작년 10월 열병식 때와 달리 ICBM은 제외돼 미국을 너무 자극하지 않으려고 나름 수위 조절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북한통, 바이든 정부에 대거 포진



〈각각 미 국무부 장관과 부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좌)과 웬디 셔먼(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월 20일(현지시간) 취임식을 통해 미국 제 46대 대통령으로 공식 취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를 폐기하고 동맹 복원과 관여를 강조해 온 바이든 정부의 출범에 따라 앞으로 미국의 대북 정책 향방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바이든 정부의 외교 인사가 주목 받고 있다.

금번 조 바이든 정부의 인사를 살펴보면 국무부 장관에 토니 블링컨 전 국무부 부장관에 이어 부장관에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지명되었다. 국무부의 1~2인자 모두 공히 북한 핵문제 등 한반도에 정통한 인사들로 평가된다.

블링컨 국무부 장관 지명자는 동북아 이슈에 해박한 인사로 알려져 있으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 2기 때 국무부 부장관을 맡아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에 깊숙이 관여하기도 하였다.

블링컨은 대북정책에서 압박적인 기조를 펴

력해왔다. 2018년 6월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선 북한을 '세계 최악의 수용소 국가'로 규정하며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했다. 2017년 3월 뉴욕타임스 기고에서는 북핵의 상당수는 산속 등에 숨겨져 있고 북한이 보복 공격을 할 경우 막대한 인명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군사적 해결책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북한 석탄 금수 조치 같은 강력한 대북제재를 대안으로 꼽았다. 또 북한의 행동 변화는 지도부가 바뀔 때만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셔먼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는 미국 내 관료 사회에서 드물게 한반도와 이란을 모두 경험한 전문가로 통한다. 셔먼 지명자는 빌 클린턴 2기 행정부 말기인 1999~2001년 국무부 대북정책조정관으로 북한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당했다.

셔먼 지명자는 작년 8월 한 세미나에서 북

한 비핵화와 관련해 북한이 핵 역지능력을 구축해 매우 어려운 문제라면서 한국, 일본과 관계 재건 등 동맹과 공조를 강조했다. 또 중국의 역할을 제기하는 등 주변국과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2018년 5월에는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핵사찰 허용, 북한의 핵프로그램 진전 중단 등을 포함해 비핵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구체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

백악관의 경우 국가안보회의(NSC)에 신설된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자리에 한반도 문제를 다루는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를 역임한 커트 캠벨이 발탁됐다. 또 국방

부 부장관에는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 견제를 방점을 둔 '아시아 중시 정책'(pivot to Asia) 시행에 관여한 인물인 캐서린 히스가 낙점을 받았다.

바이든 당선인의 외교·안보 인선은 동북아와 한반도 전문가들이 상당수 포진했다는 평가이다. 바이든 외교 정책의 핵심 난제인 중국 문제와 함께 북한 비핵화도 비중 있게 다뤄질 것임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또 단계별 접근법,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강력한 대북 제재, 국제사회 공조라는 바이든 당선인의 해법을 공유하는 인물들로 평가받는다. <참고: 언론보도 종합>

+ 오픈도어 월드워치리스트(WWL) 2021 발표

코로나19가 전세계를 휩쓴 지난 한 해 동안 상당수의 국가에서 기독교인에 대한 차별, 박해, 공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1월 13일 기독교 박해 국가 순위인 '월드 와치 리스트(World Watch List) 2021'을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진행됐다.

이 기간 4,761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살해됐으며, 4,488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았고, 4,277명의 기독교인들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됐으며, 1,71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됐다. 사망자의 91%는 아프리카에서, 8%는 아시아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 내에서 서아프리카는 믿음으로 인해 사망한 기독교인 수가 전체 수의 76%, 아프리카 수의 83%로 가장 많았다.

평균적으로 매일 13명의 기독교인이 신앙 때문에 살해를 당하며, 12개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이 공격을 받고, 12명의 기독교인이 부당하게 체포, 구금 또는 투옥되며, 5명의 기독교



입했고, 터키는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의 증가로 36위에서 25위로 순위가 올랐다. 콩고 민주공화국은 주로 이슬람 단체 ADF의 기독교인 공격으로 40위, 모잠비크는 북부 카보 델 가도 지방에서 이슬람 폭력으로 상위 50위 안에 들었다. 방글라데시는 로hing 야 난민들 사이에서 기독

인이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납치당한 것이다.


조사에 따르면 오픈도어의 박해국가 상위 50위를 한정하더라도 약 3억 4천만 명의 기독교인이 매우 높거나 극단적인 수준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세계 그리스도인 가운데 8명 중 1명, 아프리카 6명 중 1명, 아시아 5명 중 2명, 라틴아메리카 12명 중 1명 꼴이다. 특히 박해조사 29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50개 모든 국가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을 받는, 매우 높거나 극도의 박해를 경험한 것으로 평가됐다.

박해국 상위 10위는 북한,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리비아, 파키스탄, 에리트레아, 예멘, 이란, 나이지리아, 인도 순으로,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변동이 없었다. 나이지리아가 처음으로 최고의 폭력 점수를 얻으며 상위 10위에 진입했다. 북한은 20년 연속 1위를 유지했다.

중국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상위 20위에 진

교 개종자들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으로 38위에서 31위로 상승했다.

중국의 경우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한 종교에 대한 규제를 확대가 주요 순위 상승의 이유가 되었다. 코로나 봉쇄를 명목으로 한 통제 강화도 영향을 미쳤다. 인도와 터키와 같이 하나의 종교적 정체성을 강요하는 민족주의 증가 지역도 순위가 상승하였다.

특히 코로나의 대유행은 박해의 촉매제로 작용하여 기존의 억압을 더욱 강화시켰다. 코로나를 명목으로 한 통제 강화에 피해를 입거나, 코로나 피해에 대한 구호와 지원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등의 사례가 다양한 지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여파로 박해 지역 기독교인들은 구조적 차별과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고, 이는 박해를 더욱 악화시켰다. 

북한 이해를 위해 더 읽을만한 책



제목: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북중국경 시리즈 3)
저자: 강동완
출판사: 너나들이
발행일: 2020년 12월 4일
가격: 35,000원

북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같은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즉 어떤 사람은 북한의 엘리트들과 평양 및 그 인근 지역을 주로 이야기하고, 다른 이는 북한 외곽, 시골의 경제사정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는 식이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북한은 가난하고 못산다는 우리의 고정관념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한다. 과연 영상으로 접하는 평양은 평해튼으로 불리는 높은 고층

빌딩들이 들어서고 반듯하게 정리된 거리에 말쑥하게 차려입는 사람들이 왕래하는, 기존의 가난과 빈곤의 북한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또 어떤 이는 북한의 시장경제 활성화로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고 설명한다. 경제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공인 시장 수백여곳이 전국적으로 세워지는 가운데 신흥 자본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 내지에서는 생계 유지에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도 들린다. 기아나 꽃제비가 과거 고난의

행군때만이 아닌 지금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이야기한다. 언뜻 보아서는 각자 전혀 상반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만큼 북한은 양 극단의 모습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곳이라 그런 듯 하다.

강동완 교수의 저서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 는 이러한 북한의 복잡한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저자는 최근 북중국경 시리즈를 통해 북한 국경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다양한 사진자료를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단순히 국경의 사진을 나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북한을 이해하는 키워드와 새로운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이번 책에서는 특별히 “평양”을 통해, 또 여러 선전 문구를 통해 대외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북한의 이미지와 북한의 외곽이라고 할 수 있는 북중국경지역의 직접적인 대비를 통해 극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무엇보다 최근 저자의 북중국경 시리즈 전반에서 느껴지는 바와 동일하게 이번 책에서도 엄청난 분량의, 고퀄리티의 사진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다. 국경 지역 곳곳의 사람들과 건물들이 생생하게 들여다보이는 사진들을 보면 지금은 갈 수 없는 그곳이 마치 손에 잡힐 듯 가까이 있는 느낌이 든다. 특히 사진들이 아무런 풍경사진을 무작정 모아놓은 것이 아닌, 각 사진마다 전해지는 인상이 있다는 점이 좋았다. 어떤 사


진은 북한 주민들의 일상과 애환을, 어떤 사진은 북한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듯한 여러 선전구호 및 구조물들을, 또 어떤 사진은 사진 저편이 강도 높은 통제에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여러 초소들과 군인들의 모습 등 풍성하면 서도 다양한 사진들을 통해 북한에 대한 생생한 인상을 전해주고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책은 평양으로 대표되는 북한이 내세우는 그것과 국경 인근 외지의 모습을 대비하고 있는데, 그 대비에서 발견되는 불일치와 모순이 극적이다. 평양에서는, 또 북한의 선전에서는 멋진 건물과 창대한 선전 문구를 내세우지만 사진 속 북한의 풍경은 그러한 선전을 무색케 한다. 북한의 방송이 선전하는, 주민들이 누리고 있다는 여러 멋진 시설물들과 다양한 혜택이 사진 속 북한 주민에게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거나 아주 열악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대비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대비는 과연 북한 당국이 자랑하는 그것들이 정말 보통의 일반 주민들을 위한 것인지를 반문할 수 밖에 없게 한다. 이 책의 제목, 평양 882.6km 역시 평양과 보통의 북한 사이의 큰 간격을 상징하는 것인 듯 하다.

이 책은 북한의 모순에 대해서도 지적하고 있지만, 독자로서 느끼는 바로는 그것이 책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아닌 것 같다. 만

약 체제 모순을 지적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더 선명하게 대비시킬 수 있는 편집도 가능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 책은 이러한 대비를 상당히 절제된 태도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책 속의 평양은 주로 삽화 몇 장으로 묘사되고, 교시나 선전 문구도 몇 줄 간단하게 표현한 반면 대부분의 책의 내용은 국경 인근의 풍경과 주민들의 사진으로 꾸며져 있다. 이것은 아마도 독자들이 이 사진들이 담고 있는 이런 보통의 북한 사람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라는 저자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든다. 이런 절제되고 어떤 면에서는 세련된 접근이 어찌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한 논쟁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주제를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게 풀어내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책의 분량이 상당하고 두께도 두껍지만 사진 위주이다 보니 누구나 편안하게 권할 수 있는 책이다. 물론 구성이 그렇다는 것이지 이 책의 내용이 가볍지는 않다. 오히려 우리에게 내가 마음에 담은 북한은 무엇인지, 정말 우리가 관심을 쏟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계속 질문하게 하는 묵직한 책이다. 게다가 귀한 사진 자료는 그 자체로도 상당히 가치가 있다. 북한에 대해 관심을 쏟는 이는 물론이고 아직 북한에 대해 생각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권해줄 수 있는 책으로 “평양 882.6km, 평양공화국 너머 사람들”을 소개해본다. 

1. 2021년 새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1월에는 북한의 제 8차 당대회와 바이든 미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년 초부터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각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화의 역사가 진전되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 내 어려운 경제 사정은 이미 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언급될 정도로 어렵습니다. 경제 제재, 코로나19로 인한 국경봉쇄, 태풍과 홍수 등 자연 재해, 유난히 추운 겨울 날씨 등 다양한 난관이 북한 주민들을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번 8차 당대회에서 경제실패를 자인하고 인민대중과 애민을 강조하는 언급은 있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는 모습입니다. 북한의 영혼들을 향하신 주님의 시선과 눈물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구호와 선전으로의 애민을 넘어 북한 주민들의 실제적인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특별히 영과 육 모두 일용한 양식이 공급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3. 2021년 북한의 긍정적 변화와 복음의 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8차 당대회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 보다는 오히려 핵무력을 강조하며 계속해서 전술, 전략 무기를 개발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金正은의 총비서 추대 등 지도자 위상 높이기에 애쓰는 북한의 행보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여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핵화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폭압적인 통치가 변화되고 북한에 복음의 문이 더 크게 열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4. 북한의 기독교 박해 중단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 기도합니다. 2021 월드와치리스트가 발표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시국 속에서 기독교 박해가 더욱 심해진 가운데 북한은 올해도 세계 최악의 박해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여전히 유사종교적인 체제를 붙잡는 가운데 기독교를 탄압하는 북한의 행태가 바뀌도록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 제대로 된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 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국제 사회와 외교 무대에서도 북한의 종교의 자유 증진과 인권 개선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5. 기독교 박해로 인해 고통 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에도 목숨을 걸고 비밀리에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또한 박해로 인해 순교한 신자의 후손, 또는 산간오지 추방 및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형제자매들과 그 후손들이 있습니다. 북녘의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생존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현재 북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한국인 억류자(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 그리고 그 외 북에 붙잡혀 있는 조선족 사역자들의 석방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지 성도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의 사역이 국경 통제와 코로나 시국 장기화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요.
6. 북한 선교현장과 북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가 좀처럼 종식되지 않는 가운데 북한 선교 환경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방역 통제 강화와 비자 발급 제한 등의 조치는 선교사님들의 고민을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전과 전보다 더 많은 통제와 제약을 감수하며 사역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선교현장의 어려움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사역의문이 더 넓게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북한의 국경이 열리고 북한의 영혼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현장사역자들의 강건함과 안전을 위해, 북한 선교를 위해 힘써온 동포 조선족 교회들이 더욱 강하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합니다.
7. 대북 라디오 방송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디오는 복음을 북녘을 향해 전달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오픈도어선교회는 생명의 강 방송, 극동방송, 북방선교방송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의 성도들을 격려하고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2021년 새로운 프로그램을 가지고 북한으로 복음의 메시지를 송출할 이들 방송국들과 방송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성도들과 주민을 위한 양질의 방송이 제작될 뿐 아니라 들으시는 청취자들이 안전한 가운데 복음의 메시지를 온전히 듣고 깨닫는 역사가 충만하도록 기도합니다. 기상 악화나 북한의 방해전파 등으로 인한 음질 저하 및 청취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도합니다.

서울시 동작 우체국 사서함 56호 우편번호 07056
 * TEL 02-596-3171
 * Home Page : www.opendoors.or.kr
 * E-mail : info@opendoors.or.kr

☐ 후원계좌 (북한선교)
 국민은행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9301-04-169183

북한월간개발소식 / 등록일 : 2010년 9월 27일 / 등록번호 : 성북, 라 00067 / 발행년월일 : 2021년 2월 1일

World Watch List 2021 월드와치리스트 - 기독교박해지도

크리스천들을 가장 박해하는 국가 TOP 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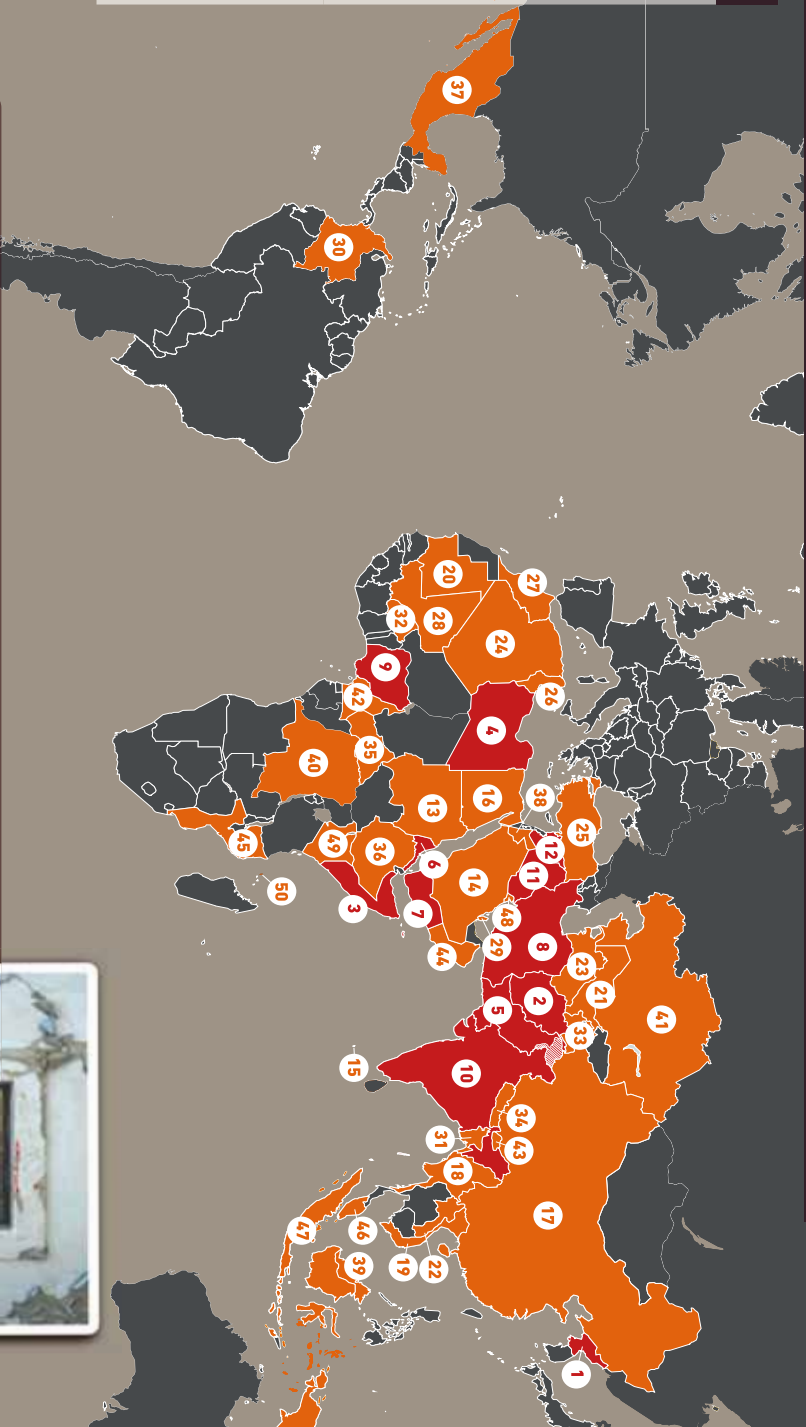
1	북한	26	튀니지
2	아프가니스탄	27	모로코
3	소말리아	28	말리
4	리비아	29	카타르
5	파키스탄	30	콜롬비아
6	에리트레아	31	방글라데시
7	예멘	32	부르키나파소
8	이란	33	타지키스탄
9	나이지리아	34	네팔
10	인도	35	중앙아프리카공화국
11	이라크	36	에티오피아
12	시리아	37	멕시코
13	수단	38	오르단
14	사우디아라비아	39	부르나이
15	몰디브	40	중국
16	이집트	41	카자흐스탄
17	중국	42	키메룬
18	미얀마	43	부탄
19	베트남	44	오만
20	모리타니아	45	모잠비크
21	우즈베키스탄	46	말레이시아
22	러오스	47	인도네시아
23	투르크메니스탄	48	쿠웨이트
24	알제리	49	케냐
25	터키	50	코모로

박해수준

● 극심한 수준의 박해 ● 매우 높은 수준의 박해

오픈도어 월드와치리스트는 크리스천의 박해가 가장 심한 50개 국가들의 순위를 정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이며, 신뢰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오픈도어 분석가들이 150개 국가의 환경으로 부터 오는 실제적인 데이터를 분석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각 국가의 박해수준은 오픈도어가 이용하는 평가 점수 시스템에 의해 기록됩니다. 이것은 폭력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사회 생활 가운데 얼마나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자유가 보장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오픈도어의 조사 방법과 결과물은 국제종교자유기구 (International Institute for Religious Freedom)에 감사드립니다. WWI 2021 데이터는 2019년 10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기간에 해당됩니다.



“내 삶과 조국을 위해 내 마음과 꿈을 다시 여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은 민주주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 해나 지난 후, 더 중요하게는 많은 기도를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열아홉은 나의 마음을 녹였습니다. 오늘 열린 마음으로, 나는 북한에 대한 나의 꿈과 희망의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탈북 다모데 황세

“너희도 함께 간헐 것 같이 간헐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 받는 자를 생각하라”

하133

